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8(土)	9(日)
구름 많음 18 / 26℃	구름 조금 18 / 28℃

News

- 민주 대선후보 5파전 ②
- 지하철2호선 市費로 건설 ③
- 産銀, 여천고에 2억 지원 ④

Jeollado

- 그 사람-이효계 前 시장 ⑦



Entertainment

- 발라드 '가을 유혹' ⑧
- 주연 퀘천 조연 배우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벌꿀 ⑬



유망직업 전망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
http://www.jnsci.ac.kr



오리지널 '캣츠' 보자

세계 4대 뮤지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캣츠'가 7일 오후 광주문화예회관에서 개막했다. 오리지널 뮤지컬을 관람하려는 시민들이 공연장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캣츠는 오는 16일까지 모두 13회 공연된다. > 관련기사 3면.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호남에 진 빛 경제로 갚겠다”

신당 광주서 첫 정책토론회 문화수도·F1 등 지원 약속

대통합민주신당 본경선에 진출한 대선주자 5명은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놓고 첨예한 정책대결을 펼쳤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토론회에서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후보 등 5명은 기초연설을 통해 저마다 광주 민주화정신을 계승하고 나후원 호남을 발전시킬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후보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과 관련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자부심을 안긴 광주·전남에 국민들이 진 빛을 경제로 갚아야 한다"며 "광주·전남을 우주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정동영 후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해 "특별법은 이미 제정된 만큼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광주는 문화산업과 평화도시, 전남은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수엑스포부터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후보는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에 대해 "2015년까지 완공 용산역세권 개발로

얻는 2~3조원의 수익을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서남권특별법 제정과 광주R&D 특구 조기 지정, 나주 혁신도시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후보는 'F1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주에 국제평화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명숙 후보는 "호남고속철이 임기내 반드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만금사업'과 관련 "해양레저산업을 핵심으로 전통과 음식문화가 어우러진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특히 '평화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각축을 벌였다. 이에 앞서 6일 밤 열린 첫 TV토론회인 MBC '100분 토론'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항마'임을 자처하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특히 손, 정 두 후보에 대해 친노 주자들의 협공이 전개되는 등 '친노 대 비노' 전선이 뚜렷이 형성됐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는 7일 본경선에서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고 모바일 투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최고위원회-대선주자 연석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날 연대변인이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남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제외 “정부, 지역경제 외면” 반발

광주시 남구가 7일 투기과열지구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자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민들은 "광주에만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를 넘고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수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지방 주택시장 실정을 외면하는 물론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대전시 동·중·

서·대덕구 등 1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광주 남구를 비롯해 수도권 전지역과 울산 전지역, 경남 창원시는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도시내 주거선호지역으로 향후 과열우려가 있어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 5년내내 당첨자 등에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김호준 회장은 "최근 신일에 이어 세종건설이 부도나면서 지역 주택건설업체에도 '부도 도미노'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나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우려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측도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지역 주택시장이 더 어려워졌다"며 "주택건설 경기에 민감한 일반건설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미분양 물량외에 연말까지 1만2천527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인데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돼 주택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北 핵포기하면 평화협정 맺을수도”

한·미 정상 “남북정상회담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 제안”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10월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협정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전

쟁을 종결시켜야 하며, 종결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백종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며 양 정상의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1시간10

분 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제 외에도 한미동맹 발전을 비롯한 양자문제, 이라크, 아프간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6자회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안보정착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기술자로 구성된 '불능화 실무기술팀'이 11~15일 북한을 방문, 북측 기술자들과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
입학상담 062)440-5555